

“ (하나님이 빠진) 큰 기쁨의 자리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사무엘상 11장 14~15절(구약 p.424)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은 암몬의 침략을 극복하고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은 정말 함께 기뻐하셨을까?**”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는 왕을 얻은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왕좌에서 물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왕정 체제를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결과가 좋아보인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3. 중요한 계약을 맺는 자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자리 등, 새로운 출발의 자리인 내 인생의 길갈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왕은 무엇이 있을까요? 1~10까지의 숫자를 표기함으로 우리 삶의 왕을 살펴보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인간관계(사람)	돈(통장잔고)	능력(기술,학위)	명예	하나님

4. 승리하거나 어떤 일이 잘 풀릴 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구역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요 11~12장)**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병榻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 베다니로 가려고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던 무리를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리시며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며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서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표적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더욱 대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옵니다.



**화요일(요 13~14장)**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34~35절)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수요일(요 15~16장)** 그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언약에 적합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곧 자신이 인류를 위해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후에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실 것이며, 그 성령께서 세상에 남아 있는 제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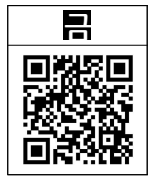


**목요일(요 17~18장)**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자신과 제자들과 미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진해서 군사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게 제자들은 해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보고 심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을 좇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안나스의 집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크게 통곡했습니다.

**금요일(요 19~21장)**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열어 예수님의 사형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허락받기 위해서 주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심문했지만, 주님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지만,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민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허락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후, 사도의 소명을 포기하고 바다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낙심하여 사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토요일(요일 1~2장)** 모든 사도가 죽고 나서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90년을 전후해서 소아시아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이단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사랑 안에서 권면할 필요를 느끼고 펜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올바른 기독교론을 제시합니다.



**주 일(요일 3~5장)** 요한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힙니다.



### \* 합심기도 :

1. 내 인생의 왕좌에 다시 주님이 앉아 주옵소서
2.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먼저 묻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258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광서 부목사)